

2014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성경의 중심—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메시지 11

빌립보서

(3)

우리의 미덕들과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의 비결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성경: 빌 4:5-9

I.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우리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이다 — 빌 1:19-21 상, 2:5-13, 3:8-10.

- A. 바울은 염려가 없는 것과 관용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처음 두 방면이라고 여겼다.
- B. 사탄에게서 오는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계이며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오는 관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계이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된다 — 마 6:22-34.

II.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 빌 4:5.

- A.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관용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관용은 사실상 넘치는 공급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 빌 1:19-21 상.
 - 1.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관용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해도 쉽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관용은 사랑, 인내, 친절, 겸손, 동정, 배려, 순종적임, 기꺼이 양보함을 포함한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을 가지고 있다면 의와 거룩함도 갖게 될 것이다.
 - b. 관용은 또한 자제, 적당함, 관대함, 이해, 동정, 지혜, 긍휼, 평안함, 주님을 바라봄과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주권적이신 분임을 인정하는 미덕도 포함한다 — 비교 고후 12:7-9.
 - 2. 관용하는 사람은 항상 적응해 들어가는 사람, 곧 언제나 적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 비교 고후 6:1 상, 10:1, 빌 1:19, 사 11:2.
 - a. 만일 우리가 관용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혜와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들을 공급할 역량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그것을 언제 말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가질 것이다 — 사 50:4-5, 골 1:28, 잠 25:15.
 - b. 관용적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하는 것이다 — 대하 1:10.
- B.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인 관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는 관용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사는 것은 관용이었다 — 빌 1:21 상.
 - 1.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확대하는 그리스도, 곧 우리가 본으로 취하며 우리의 목표로 추구하는 그 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 2. 오직 주 예수님만이 관용으로 가득한 생활을 사셨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온전한 관용이 되실 수 있다.
 - 3. 우리의 관용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인간 미덕들의 총체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다.

- C. 관용에 대하여 말한 후에 곧바로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했다.
1. 공간의 면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시간의 면에서 주님은 가까이 계시며 곧 오신다 — 비교 롬 10:8-13.
 2.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은 주로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 마 1:23, 출 33:14.

III.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 빌 4:6-7.

- A.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평안이시며 사람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다 — 사 9:6, 요 14:27, 눅 7:50, 롬 3:17, 5:1, 8:6, 15:13, 16:20.
- B. ‘모든 일에서’라는 말은 날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가리킨다.
- C. 기도는 경배와 교통을 그 본질로 하는 일반적인 것이다. 간구는 특정한 필요를 위한 특별한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는 모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 D.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 교통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이다.
- E.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인 하나님이다(빌 4:9).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요 16:33).
- F.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신다 — 비교 사 30:15 상.
- G. 만일 우리가 염려없는 생활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운명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 롬 8:28-30, 마 10:29-31, 고후 4:15-18.

IV.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 빌 4:8.

- A. 이러한 미덕들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 속에서부터 살아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의 표현이다.
- B. 이러한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여섯 가지 지배하는 방면들이다.
 1.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참되다—윤리적으로 진실하며 어떤 가장함이나 거짓이 없다.
 2.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장중하다—존귀하고, 고상하며, 정중하며, 견고하고, 무게있고, 존경심을 불러 일으킨다 — 딤후 3:8, 11, 딤후 2:2, 비교 롬 9:21.
 3.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의롭다—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다 — 빌 3:9.
 4.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순수하다—의도와 행동이 단일하고 어떤 혼잡도 없다 — 마 5:8.
 5.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사랑스럽다 — 사랑할 만하며, 상냥하고 애정을 느끼게 한다.
 6.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좋은 평판을 받는다— 유명하고, 좋은 평판을 받고, 매력이 있으며, 마음을 끌며, 친절하다 — 호 14:7.
- C. 미덕과 칭찬은 앞에 있는 여섯 항목의 총합이다. 그 여섯 항목에는 모두 어떤 미덕이나 탁월한 것이 있고 또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 — 빌 4:8 하.
- D.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곧 하나님의 속성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로 충만된 인간 생활을 갖는 것이다 — 비교 창 1:26.

- V.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빌 4:11 하-13.
- A.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곧 모든 종류의 환경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일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취했다 — 빌 4:4.
- B.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는 직역하면 ‘나는 입문하였습니다.’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을 가리킨다 — 골 2:2, 엡 3:3-4, 5:32.
1.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아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 — 행 9:3-19, 25-28, 22:6-21, 13:1-4.
 2.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골 3:4), 그리스도를 살고(빌 1:21 상), 그리스도를 확대하고(빌 1:20),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12), 교회생활을 하는 비결(빌 1:8, 19, 2:1-4, 19-20, 4:1-3)을 배웠다.
- C. 빌립보서 4 장에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 빌 4:13, 영한동번 찬송가 564 장.
1.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인 바울은 모든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적용했다.
 - a. 바울은 그리스도를 적용했고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 — 빌 3:9.
 - b. 이 그리스도는 참되며 살아계시고 가깝고 편리하며 유력하다 — 빌 4:5 하, 영한동번 찬송가 539 장.
 2.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간 미덕들이신 그리스도를 살도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종류의 환경 안에서 그분의 무한하신 위대함을 확대하는 것에 적용된다 — 빌 4:8-13.
 - a.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심에 의해 우리는 만족하는 생활을 살고 참되며 장중하며 의로우며 순수하며 사랑스러우며 평판이 좋을 수 있다 — 빌 4:11-12, 8.
 - b. 이러한 미덕들에 속한 생활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3. 만일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다음의 항목들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 a.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에 기초하여 철저하고 신선하게 죄들에 대한 용서를 체험해야 한다 — 히 9:14, 10:19, 22, 출 24:8, 마 26:28.
 - b.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잘려지고 분리되며 세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은 생명 주시는 기름바르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다 — 요일 2:15-16, 20.
 - c. 우리는 승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우리가 영접한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으로 승천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외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내적으로 우리의 내적 생명과 태도의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들 안에서 살고 있다 — 엡 2:6, 히 8:2, 4:14-15, 7:25-26.
 - d. 땅 위에서의 우리의 실지적인 생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며 그분의 얼굴 빛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 시 42:5, 11, 80:1, 3, 7, 19.